

주간 뇌 연구 동향

2018-10-24



한국뇌연구원
뇌연구정책센터

국내외 뇌 연구 학술 동향

1. 치매 원인 '뇌 염증' 억제 물질 찾았다
2. 위장술 끝판왕 갑오징어 뇌를 연구하다
3. 뇌 신경망 구조형성 역할 분자 발견...뇌전증·자폐증 원인연구 '한걸음 더'

과학 기술 정책 및 산업 동향

1. 몸은 죽고 뇌만 살아있다면... 온전한 인간으로 봐야하나
2. 강릉아산병원, '뇌심부자극술'로 운동장애 치료
3. '초등생' 눈에서 한국 과학 '희망'을 보다
4. 한국뇌연구원,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우수기관 선정

01. 국내외 뇌 연구 학술 동향

출처 : Zdnet Korea

1. 치매 원인 '뇌 염증' 억제 물질 찾았다

J Neuroinflammation. 2018 Oct 11;15(1):286. doi: 10.1186/s12974-018-1321-3.

The small molecule CA140 inhibits the neuroinflammatory response in wild-type mice and a mouse model of AD.

Lee JY¹, Nam JH¹, Nam Y¹, Nam HY¹, Yoon G¹, Ko E², Kim SB², Bautista MR³, Capule CC³, Koyanagi T³, Leriche G³, Choi HG², Yang J³, Kim J⁴, Hoe HS⁵.

⊕ Author information

* 원문보기: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le_id=20181024094250&type=det&re=zdk

* 논문보기: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309372>

- 치매(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 뇌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이 발견됐다. 한국뇌연구원 허향숙 책임연구원이 주도한 한미 공동 연구팀이 알츠하이머 병의 주요 원인인 뇌 염증을 억제하는 신 물질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 최근 뇌의 면역반응으로 생기는 염증, 즉 뇌 염증이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과 관련이 깊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 뇌 염증을 일으키는 미세아교세포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신경 손상과 기억력 퇴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뇌 염증과 미세아교세포를 조절하는 방법은 퇴행성 뇌질환의 치료 전략 개발에 중요하다. 미세아교세포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지지하며 신경세포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병 실험동물에게 'CA140'이라는 신 물질을 투여한 결과 뇌에서 미세아교세포의 활성도가 낮아지고, 뇌 염증 반응도 억제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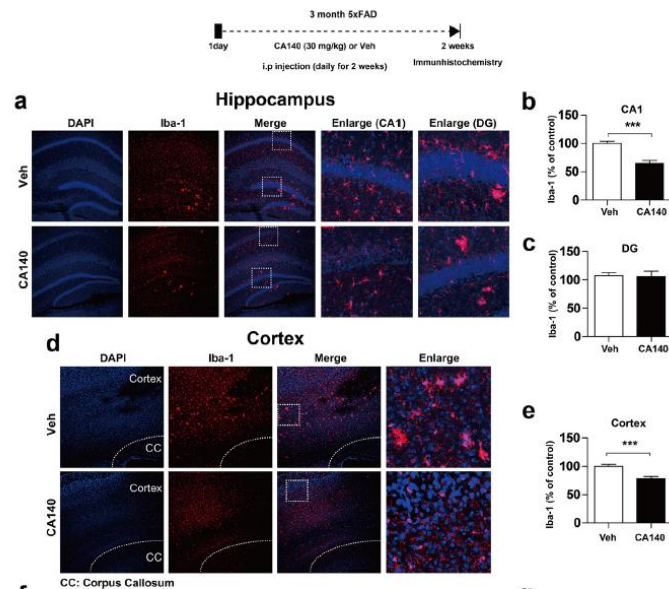
한국뇌연구원 뇌질환연구부 퇴행성뇌질환 연구팀(왼쪽부터 허향숙 박사, 남영표 연구원, 김정연 박사, 이주영 연수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01. 국내외 뇌 연구 학술 동향

출처 : Zdnet Korea

1. 치매 원인 '뇌 염증' 억제 물질 찾았다

- CA140은 흥분성 신경조절물질인 도파민의 구조를 기본으로 합성한 저분자 화합물로, 미국 샌디에고 캘리포니아주립대의 제리 양 교수가 7년 전 처음 만들었다. 연구팀은 뇌 염증을 겪는 쥐에 CA140을 투여하자 미세아교세포 내에서 면역반응의 신호 물질인 사이토카인 수치가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쥐에도 2주 동안 매일 CA140를 주입한 결과 치매 단백질로 잘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가 일으키는 뇌 염증이 억제된 것을 밝혀냈다.
-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과도하게 쌓이면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미세아교세포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뇌 염증이 늘어나고, 결국 기억력이 퇴화되는 등 퇴행성 뇌질환이 발병하게 된다. 이번 연구는 도파민 수용체가 세포 수준에서 뇌 염증을 조절하는 자세한 분자기전을 밝혀내고 억제 약물까지 찾아낸 것이다.
- 허향숙 책임연구원은 "향후 알츠하이머 병 등 신경염증 질환의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신경염증저널' 11월호에 게재됐다



CA140 significantly reduced microglial and astrocyte activation in 5xFAD mice.

01. 국내외 뇌 연구 학술 동향

출처 : 동아 사이언스

n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2. 위장술 끝판왕 갑오징어 뇌를 연구하다

Nature. 2018 Oct;562(7727):361-366. doi: 10.1038/s41586-018-0591-3. Epub 2018 Oct 17.

Elucidating the control and development of skin patterning in cuttlefish.

Reiter S¹, Hülsdunk P^{1,2}, Woo T¹, Lauterbach MA¹, Eberle JS¹, Akay LA¹, Longo A¹, Meier-Credo J¹, Kretschmer F¹, Langer JD^{1,3}, Kaschube M², Laurent G⁴.

* 원문보기: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24573>

* 논문보기: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333578>

- 갑오징어나 문어는 몸의 색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주변 물질의 질감까지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어, 육지의 카멜레온과 함께 변신의 귀재로 불린다. 눈에 비친 세상을 그대로 몸에 반영하는 것이다.
-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19일 바다를 유영하는 갑오징어 모습을 담은 사진을 표지에 실었다. 갑오징어가 변신하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 갑오징어의 피부 아래에는 색소포자라고 불리는 작은 세포들이 퍼져 있다. 갑오징어의 위장술에 대해 학계에서는 시각 신호를 받고 뇌에서 전달한 신호가 피부 근육을 수축시키면, 색소포자가 커지거나 작아지면서 색이 변한다고 설명한다. 뇌의 활동 변화를 컴퓨터로 분석해 색변화를 추적했다.
- 하지만 일부 실험에서 뇌의 명령을 피부에 전달하는 운동 신경을 차단해도 갑오징어가 피부의 돌기를 바위처럼 바꾸는 위장술을 1시간 이상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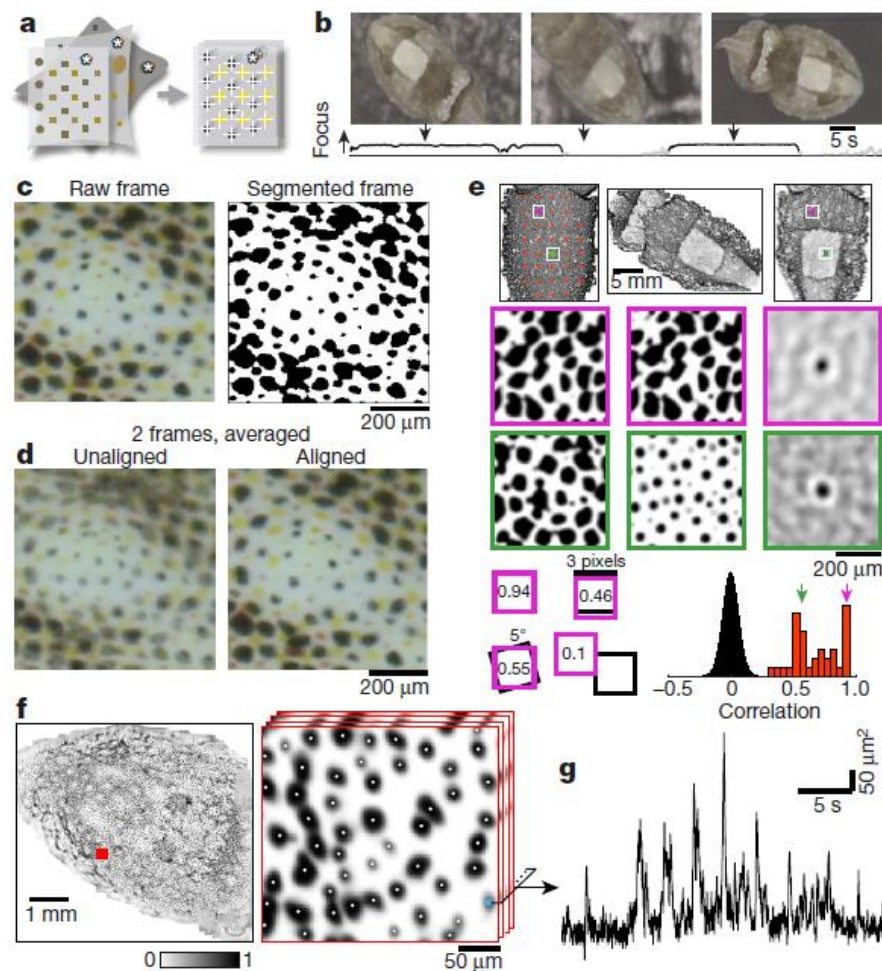
Nature 제공

01. 국내외 뇌 연구 학술 동향

출처 : 계속

2. 위장술 끝판왕 갑오징어 뇌를 연구하다

- 피부색의 변화 패턴을 먼저 확인한 다음, 오징어의 뇌의 신호 변화를 역추적하는 방법이 고안됐다. 피부가 변신하는 과정에서 뇌 속 신경세포들의 변화 양상을 거꾸로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 질 로랑 독일 막스플랑크두뇌연구소 교수 연구진은 오징어의 몸 색깔이 바뀔 때 색소포자의 변화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물 탱크 속에 초당 60회까지 촬영할 수 있는 20대의 카메라를 장착했다. 이후 갑오징어를 넣고 탱크 내부에 자갈이나 암반 등 다양한 질감이 인쇄된 그림을 노출시켰다. 이때 나타나는 색소 포자의 변화를 사진으로 찍었다.
- 로랑 교수는 "뇌의 패턴 변화에서 피부색의 패턴을 유추하는 기존 방법이나 피부 변화에서 뇌의 변화를 역추적하는 방법 모두 중요하다"며 "이를 상호 보완하면 갑오징어의 위장술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romatophore tracking in behaving cuttlefish

01. 국내외 뇌 연구 학술 동향

출처 : 매일경제

3. 뇌 신경망 구조형성 역할 분자 발견...뇌전증·자폐증 원인연구 `한걸음 더`

EMBO Rep. 2018 Sep 17. pii: e46250. doi: 10.15252/embr.201846250. [Epub ahead of pr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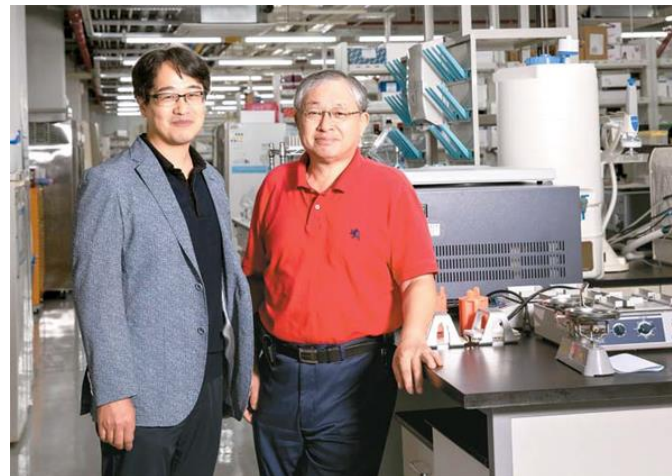
Netrin-1/DCC-mediated PLC γ 1 activation is required for axon guidance and brain structure development.

Kang DS^{1,2}, Yang YR¹, Lee C¹, Park B¹, Park KI¹, Seo JK³, Seo YK¹, Cho H¹, Lucio C⁴, Suh PG⁵.

* 원문보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645797>

* 논문보기: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224412>

- 국내 연구진이 포유류의 뇌 신경망 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자를 발견했다.
- 서판길 울산과학기술원(UNIST) 생명과학부 교수와 강두석 KAIST 연구교수 공동 연구진은 쥐 실험 결과 신호전달 핵심 효소인 'PLC감마1'이 신경발생 단계에서 뇌 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찾아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엠보 리포트' 지난달 17일자에 게재됐다.
- 인간의 뇌에는 약 1000억개의 신경세포가 자리 잡고 있다. 각 신경세포는 복잡한 신경망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우리 뇌가 작동하게 된다. 신경망 형성은 대부분 '신경발생단계'에서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는 잘못된 유전적 요인의 개입이 일어나거나 외부 환경요인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 뇌전증, 자폐증과 같은 신경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연구진은 쥐 뇌를 관찰함으로써 신경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냈다. 서판길 교수는 "PLC감마1은 발생단계에서 신호전달을 조절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며 "PLC감마1이 초기 망가졌다면 뇌 신경세포 형성에 영향을 미쳐 뇌 신경망이 불완전하게 형성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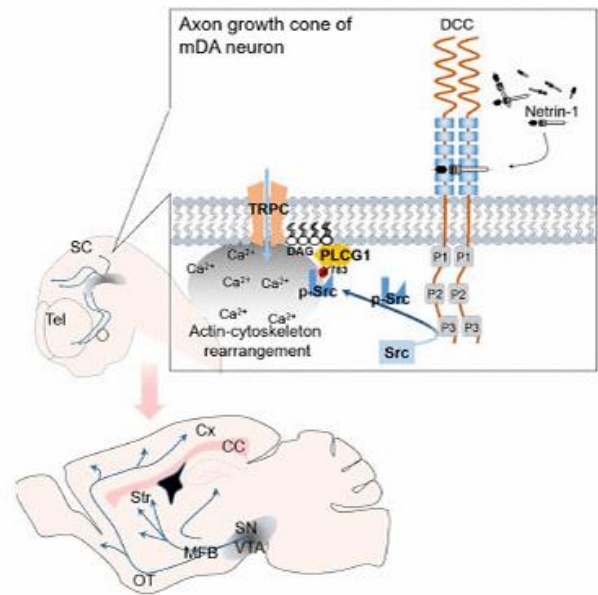
서판길 교수(오른쪽) 강두석 연구교수(왼쪽)

01. 국내외 뇌 연구 학술 동향

출처 : 매일경제

3. 뇌 신경망 구조형성 역할 분자 발견...뇌전증·자폐증 원인연구 `한걸음 더`

- 지금까지 진행된 많은 신경과학 연구는 신경망 구조와 뇌신경계 질환 관련성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신경의 `연결`에서 뇌 기능 및 뇌 질환의 병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 강두석 연구교수는 "실제로 알츠하이머, 조현병, ADHD 환자 뇌의 구조적, 기능적 연결들을 살펴보면 시상, 선조체를 둘러싼 대뇌변연계 신경망 구조에서 구조적, 기능적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신경망이 언제,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혀내는 연구는 신경계 질환의 근본적 발병 원인을 밝혀내고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특히 PLC감마1은 세포골격의 역동성을 조절함으로써 축삭(신경세포에서 길게 뻗어나온 가지)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신경의 올바른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결과는 신경발달 과정에서 도파민 신경계 및 뇌량 발달의 과정이 어떠한 신호전달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신경망 형성장애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뇌·신경 발달질환 연구에 많은 의미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 서판길 교수는 뇌에서 최초로 여러 PLC 동위효소를 분리 정제 및 유전자 클로닝을 한 후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규명해 왔다. 특히 최근에 개체수준에서 뇌 기능 관련 역할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Netrin-1 activates PLCγ1 via Src kinase, which is crucial for axon guidance and corpus callosum and mDA system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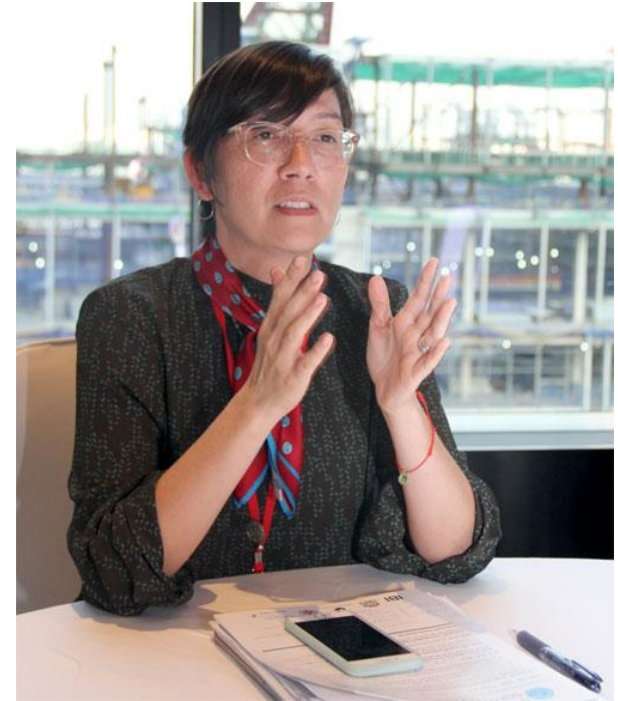
02. 과학 기술 정책 및 산업 동향

출처 : 동아닷컴

1. 몸은 죽고 뇌만 살아있다면... 온전한 인간으로 봐야하나

*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1019/92468191/1>

- 서울서 열린 '국제신경윤리회의' 세계 뇌 과학 석학들 대거 참가, 두뇌연구 윤리기준 마련 논의... "개인 존엄성-자율성 보호가 핵심"
- 미국 예일대 연구진은 4월 돼지의 뇌를 떼어내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얼핏 "그게 뭐 어려운 일인가" 싶겠지만 관건은 그 다음부터다. 연구진은 이렇게 떼어낸 뇌를 '브레인 엑스'라고 이름 붙인 장치에 넣고 계속해서 혈액을 공급했다. 피를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은 돼지의 뇌는 약 하루 반(36시간) 동안 그 기능을 유지했다. 돼지의 몸은 죽었지만 뇌는 실험장치 속에 살려 놓은 것이다. 이 연구결과를 보고 각계에선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만일 이 기술이 더 발전해 인간에게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몸은 죽고 뇌만 살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뇌를 온전한 인간으로 대우해야 할까.
- 뇌과학 연구가 발전하면서 '뇌신경 윤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뇌과학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고 인간의 지적 능력과 개개인의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 장기다. 마땅히 엄격한 윤리적 제재가 필요하지만 그 기준이 문화와 사회, 개개인의 성격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 세계적으로 통용될, 보편타당한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뇌과학계의 새로운 숙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기준을 명백하게 세우는 데는 우선적으로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동시에 인문학, 법학, 신학 등 인간의 정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의 학문까지 두루 검토할 필요가 있어 절대 쉽지 않은 과정이다.



이번 학회의 공동 의장을 맡은
캐런 로멀페인저 미국 에머리대 교수

02. 과학 기술 정책 및 산업 동향

출처 : 동아닷컴

1. 몸은 죽고 뇌만 살아있다면... 온전한 인간으로 봐야하나

- 한국뇌연구원(뇌연구원)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신경윤리회의(GNS)'도 이런 국제적 노력의 일환이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신생 학술회의지만 뇌과학 분야 석학들이 앞다퉈 참가하고 있어 이미 국제적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미국의 대표적 뇌연구 프로젝트 '브레인 이니셔티브'를 이끌고 있는 캐럴라인 멘토조, 미국 국립과학재단 생물인프라 기반분과 최고 책임자인 제임스 데실러, 신경과학분야 국제학술지 뉴런 편집장인 마리엘라 절린저 등 세계 뇌과학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가했다.
- 이들이 한국을 찾아와 머리를 맞댄 첫 번째 이유가 '뇌과학 연구의 윤리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였다. 이번 학회의 공동 의장을 맡은 캐런 로멀페인저 미국 에머리대 교수 역시 뇌신경윤리 분야 세계적 석학으로 꼽힌다. 에머리대 신경윤리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다.
- 13일 학회 현장에서 만난 로멀페인저 교수는 "뇌신경 윤리를 마련하는 데 있어 첫 번째 기준은 무엇보다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신 연구발표를 보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조금 전 어떤 영상을 봤는지, 또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조차 뇌신호를 분석해 알아내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며 "적절한 뇌신경 윤리 기준이 없다면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선택권마저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멀페인저 교수는 이어 "한국 연구진이 (뇌신경윤리 기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세계 뇌과학 커뮤니티 형성에 큰 역할을 해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12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국제신경윤리회의에서 발표 중인 월터 코로시츠 미국국립신경질환뇌졸중연구소(NINDS) 소장. 한국뇌연구원 제공

02. 과학 기술 정책 및 산업 동향

출처 : 동아닷컴

1. 몸은 죽고 뇌만 살아있다면... 온전한 인간으로 봐야하나

- 아직 부족하지만 과학자들의 이런 노력이 학계의 새로운 연구 가이드를 만드는 데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GNS 공동 의장을 맡은 정성진 한국뇌연구원 뇌연구정책센터장은 “대표적인 예로 인간의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할 때 14일이 경과하면 실험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건 그때부터 뇌신경 분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라며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많아질수록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타당한 윤리기준을 만들기도 쉬워진다”고 말했다.

- 최근 두뇌에 전기 자극을 줄 경우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이나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새로운 윤리 문제를 제기했다. 정 센터장은 “두뇌 전기 자극의 효과가 알려지자 일부 학부모층에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더 잘하게 될까’라며 연구에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문제로 뇌신경 윤리를 마련할 때는 먼저 ‘정상인의 범주’를 명확히 해야만 그 기준을 벗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의할 수 있다”면서 “이런 학계의 노력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운영법 등을 개발할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 과학 기술 정책 및 산업 동향

출처 : 후생신보

2. 강릉아산병원, '뇌심부자극술'로 운동장애 치료

* 원문보기: http://www.whosaeng.com/sub_read.html?uid=105389§ion=sc4

- 강릉아산병원이 뇌심부자극술로 운동장애 환자를 치료한다. 특히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해 영상분석에 활용해 최적의 수술 위치를 찾아 수술하고 있다.
- 강릉아산병원(원장 하현권) 신경외과 박성철 교수와 신경과 장우영 교수 팀은 최근 뇌심부자극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 환자는 수술 전에는 식사가 힘든 정도의 떨림증이 있었으며 30년간 호전되지 않던 떨림증 증상이 거의 없이 호전되었고 치료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유지되며 외래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 뇌심부자극술은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뇌의 특정 부위에 억제성 전기 자극을 가해 이상 뇌 기능을 조절하는 수술로써 충분한 약물 치료와 보톡스 등 치료를 시행한 후에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 시행을 하게 된다.
- 파킨슨병, 떨림(진전), 채머리(머리떨림), 사경증, 근긴장이상증(손발의 강직, 꼬임 등) 등의 운동장애 질환과 약물치료로 조절이 충분하지 않는 통증·뇌전증(간질) 등의 질환을 호전시킬 수 있는 수술방법이다.
- 뇌심부자극술은 뇌신경자체에는 손상을 주지 않기에 부작용이 매우 적다는 장점이 있고 전기 자극은 외부에서 무선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강릉아산병원 장우영, 박성철 교수

02. 과학 기술 정책 및 산업 동향

출처 : HelloDD

3. '초등생' 눈에서 한국 과학 '희망'을 보다

* 원문보기: <http://hellodd.com/?md=news&mt=view&pid=66420>

- ▶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는 X-STEM은 전국 과학 괴짜들의 물렸다. 초등학생 가족들과 과학 애호가들이 해마다 참석하며 축제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각 영역의 최신 과학기술을 현직 과학자로부터 접할 수 있는 과학 강연 박람회 '요즘 것들과學 X-STEM'이 지난 21일부터 22일 동안 IBS 과학문화센터에서 열렸다.
- ▶ X-STEM은 과학(Science)·기술(Technology)·공학(Engineering)·수학(Math)을 융합한 교육을 통해 과학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와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최철규)가 주최하고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한장(회장 정용환)과 대덕넷이 주관했다.
- ▶ 3년차를 맞이하는 올해는 강연에 더해 토크쇼 '요즘 것들과 과학대화'와 과학 실험쇼 '사이언스 매직 쇼'가 마련됐다. 좌석은 전국에서 온 청중으로 12개 강연들이 대부분 만석이었다. 강연을 진행한 과학자들은 초등학생들의 질문이 무척 전문적이고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면 흐뭇해했다.
- ◆ 현직 과학자들의 '솔직 토크', "그래도 과학자 되길 잘했다"
- ▶ "과학자는 천상 괴짜입니다. 만사에 의문을 품고 자신이 옳은지 덤비기 때문이죠."



어린이들의 질문이 끊이지 않았던 토크쇼 '요즘 것들과 과학대화'

02. 과학 기술 정책 및 산업 동향

출처 : 계속

3. '초등생' 눈에서 한국 과학 '희망'을 보다

* 원문보기: <http://hellodd.com/?md=news&mt=view&pid=66420>

- 무대 위 과학자들은 과학자가 되려는 학생들에게 "괴짜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남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관습을 다르게 바라봐야 새로운 문제를 밝혀낼 수 있고, 그런 점이 과학자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임을 사례를 들어 말했다.
- 분야가 다른 네 명의 현직 과학자들이 입을 모았다. 이들에 의하면, 과학자에게 '괴짜' 성질은 숙명이자, 덕목이다. 대답을 확인한 아이들의 눈은 자신감으로 빛났다. 요즘 것들과 과학대화는 과학자들로부터 현장의 속내를 알아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토크쇼다. 무대에는 최지원 KAIST 박사과정생, 이은경 IBS 박사, 김튼튼 IBS 박사, 위현호 국가핵융합연구소 박사가 자리했다. 청중은 송곳 같은 질문을 던지며 과학에 강한 호기심을 보였고, 과학자 또한 생계와 진로, 사랑에 대해 솔직한 대답으로 대중의 막연한 선입견을 걷어냈다.
-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하는 등 다양한 인생 경험을 밝힌 이은경 박사는 "연구실에서 바라던 실험 데이터를 얻으면 이보다 더 기쁠 때가 없다"며 "그 순간, 내가 내 일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과학자 되길 잘했다"고 일상의 보람을 말했다.
- 과학자들은 서로 과학자가 된 사연과 경로는 달랐지만 "과학자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연구실에서 행복을 느낀다"며 청중들에게도 과학자가 되기를 권유했다.



"꿈을 간직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사진=대덕넷>

02. 과학 기술 정책 및 산업 동향

출처 : 뉴스웍스

4. 한국뇌연구원,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우수기관 선정

* 원문보기: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668>

- 한국뇌연구원은 2018년도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우수기관에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는다.
-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는 여성과기인의 채용 촉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한 연구기관을 평가하는 제도로 여성 신규채용 비율, 여성인력 재직 비율, 고급 여성인력 활용, 여성 친화적 문화 조성 등 8개 항목을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 우수기관으로는 전국 과학기술 분야 112개 기관 중 한국뇌연구원을 비롯한 5개 기관이 선정됐다.
- 한국뇌연구원은 여성 신규 채용 및 여성인력 재직 비율, 여성친화적 문화 조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한국뇌연구원은 경영성과계획서에 '여성과학기술인 신규채용 목표 및 우수연구원 육성'지표를 설정하고 채용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성별 제한없는 능력중심 인재채용, 여성과기인 리더십 교육과 기관 운영에 여성 참여 확대 등 여성 지위 및 권익 향상에 노력하여 현재 여성 재직자 비율이 47%에 달하고 있다.
- 재량근무제 실시, 일·가정 양립 교육, 가족 사랑의 날, 모성보호실 및 여성휴게실 개선,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등 여성 친화적 근무환경을 꾸준히 조성하여 대구시 주최 대구여성가족재단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임현호 한국뇌연구원 원장대행은 "앞으로도 여성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여성친화적 문화 조성 등 각종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